

# 박인비 “더 많은 메이저 우승하고 싶다”

### “올해는 부상 치료에 집중”

골프 선수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타이틀을 갈망했다. 박인비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태평로 코리안호텔에서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더 많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200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뛰어들어 10년 간 17승을 수확했다. 이중 7승이 메이저대회에서 나왔다. 2013년에는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 LPGA 챔피언십을 싹쓸이 했고 지난해에는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4개 메이저대회 석권)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지난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엄지손가락 부상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걸며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에 도달했다. 새로운 목표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운을 댄 박인비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논할 때 메이저대회 우승보다 먼저 나오는 타이틀은 없는 것 같다. 메이저대회 우승을 쌓는 것이 내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올림픽 이후 부상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박인비는 “집스는 2주 전에 풀었고 이번 주까지 재활과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서 “인대 재생이 돼 좋아진 상태다. 다음 주부터 실전 연습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상태가 호전됐지만 내년 시즌이 있는 만큼 무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박인비는 “지금 출전을 고려하는 것은 KEB대회와 ING대회 두 개”라면서 “이 대회들도 손가락 상태를 보고 (출전을) 결정할 생각이 다. 상태가 좋아졌어도 재활 위험에 대회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선수들이 유독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두고는 자신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박인비는 “자연스럽게 몸속에 (골프를 잘 치는) 피가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외국 기자들한테 1주일에 한 번씩은 받는 질문인데 ‘코리아 블러드’라고 할 말이 없다”고 미소를 지었다. 매주 냉혹한 승부의 세계로 내몰리는 박인비는 반려견을 돌보며 힐링을 한다고 귀띔했다. 박인비는 “어제는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 수영장에 다녀왔다. 강아지의 표정을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동물들을) 좋아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집에 두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들은 무한한 사랑을 준다. 그것에서 힐링이 많이 된다”고 전했다. 박인비는 다음달 25일부터 부산 동래베네트스에서 열리는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의 호스트로 나선다. 국내에서 선수 이름을 딴 대회가 열리는 것은 최경주 박재래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대회에는 박인비 뿐 아니라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휩쓸고 있



골프선수 박인비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안호텔에서 열린 'ING생명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는 박성현(23·베스)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함께 한 양희영(27·PNS참호), 전인지(22·하이트진로) 등이 출격한다. LPGA와 KLPGA 상금순위 상위 각각 10명과 추천선수 4명 등 총 24명이 두 팀(LPGA 12명 vs KLPGA 12명)으로 나뉘어 맞대결을 펼친다. /김민근기자

### 손흥민 EPL '이달의선수' 도전

### 30%의 득표를 말라나(40%)에 이어 2위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진출 후 첫 '이달의 선수'에 도전한다. EPL 사무국은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9월 이달의 선수 후보 5명을 공개했다. 최고의 9월을 보낸 손흥민은 이적 후 처음으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지난달 11일 스토크시티전에서 2골, 1도움을 올렸다. 지난 19일 선덜랜드전에서는 공격 포인트 없이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지난 24일 미들즈브러전에서는 멀티골로 절정의 득점 감각을 뽐냈다. 대표팀 소집 직전 치른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는 부상 중인 해리 케인을 대신해 최전방을 책임지며 도움 1개를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입성 첫해인 지난 시즌에는 부상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보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팀 내 에이스로 입지를 굳힌 모습이다. 현지 언론들이 연일 극찬할 정도로 활약상이 좋은 데다 토트넘(5승2무·승점 17)이 20개팀 중 유일한 무패를 기록 중인 만큼 손흥민의 수상 가능성은 충분하다. 손흥민과 함께 케인 데 브루잉(맨체스터 시티)과 이담 킬라(리버풀), 로맹루 루카쿠(에버튼), 시오 윌콕(아스날)이 후보로 선정됐다. 손흥민은 30%의 득표율을 보이며 말라나(40%)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이달의 감독 후보로 선정됐다. 맨체스터 시티 웹 파르너들과 감독과 리버풀 유력인 클럽 감독, 아스날 아르센 벵거 감독, 크리스티안 펠리스 앨런 퍼듀도 수상을 노린다. /김민근기자

## 종합 순위 9위 목표, 전북선수단 전국체전 출정

### 임원 392명·선수 1178명 참가 수영·배구·궁도·펜싱·세팍타크로 등 상위입상 예상

'제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도선수단이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종합 9위를 목표로 본격적인 출정에 나섰다. 7일부터 13일까지 충청남도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국체전은 전국 2만 4,811명의 선수단이 소속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선수단은 임원 392명과 선수 1,178명(고등부 489명, 대학부 114명, 일반부 545명)이 참가해 작년 보다 한 단계 높은 종합순위 9위를 차지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전북선수단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수영, 배구, 궁도, 펜싱, 세팍타크로 등

이 상위입상이 예상되고 있고 육상(필드), 농구, 유도,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등 5종목 역시 타 시·도와 견줘볼 만한 경쟁력을 가진 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양궁 여자대학 부문에 출전하는 우석대 김경은, 한희지 선수는 동 부문에서 가장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고 있어 신기록 갱신이 유력하다. 육상 여자일반부에 출전하는 신소광선수와 수영 남자일반부 김성겸, 탁구 여자고등 김지호, 역도 남자고등 임강훈, 펜싱 남자일반 김정환 선수 등도 좋은 기량을 바탕으로 유력한 다관왕 후보로 꼽히고 있다. 우리도가 단체종목의 메달을 기대해볼

만 한 종목으로는 배구 남자고등 남상고등학교와 남자일반부 국군체육부대가 유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탁구 여자고등의 이일영과 핸드볼 남자고등 전북제일고등학교, 펜싱 남자일반부 국민체육진흥공단(사브르), 여자고등 이리여고(사브르) 역시 우승 유력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2014년 대회에서 종합 14위로 추락하며 체면을 구겼던 전북선수단은 작년대회에서 부단한 노력 끝에 종합 10위를 차지하며 자존심을 회복한 바 있다. 대진추첨에서 운이 많이 따랐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대진추첨이 생각보다 좋지 못해 선수단의 분전이 요구되고 있다. 종합 9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종합 점수를 3만 3,000점 이상 획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체육회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현지 적응 훈련과 우수팀 특별관리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개막식은 7일 18시 아산 종합운동장 뒤 보조경기장에서 열리게 된다. 전북선수단은 임원 50명과 선수 74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과연 전북선수단이 좋지 못한 대진추첨을 이겨내고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종합 9위로 대회를 마감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김민근기자

###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개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열리는 '2016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이 8일부터 9일까지 임실군 일원에서 열린다. 대회종목은 8개의 정식종목과 2개의 시범종목, 1개의 시연종목으로 총 11개 종목으로 진행이 되며 도내의 294개 클럽 3,940명의 선수단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의 개회식은 8일 임실 군민회관에서 도 체육회장인 송하진 도지사과 황현 도의회의장, 삼민 임실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종목별 시상식은 20일에 진행된다. 한편 시·군 별로 가장 많은 동호인 팀이 참석한 지역은 56개 팀이 출전하는 전주시가 최다 출전도시가 영예를 차지했고, 최저 출전도시는 9개 팀이 출전하는 임실군이다. /김민근기자

### 에어로빅스체조경연대회 8일 임실군민회관 개최

도내의 44개 팀 1,000여명의 에어로빅 동호인이 참석하는 '2016 에어로빅스체조경연대회'가 8일 오전 10시 임실군민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에어로빅체조 및 건강체조, 생활체조, 댄스포츠 및 댄스체조, 민속체조 및 수련체조, 기구체조, 요가체조 등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한편 올해 대회는 작년 대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광장지도자들이 주요 순위를 대부분 차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와 광장지도자의 출전을 제한했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